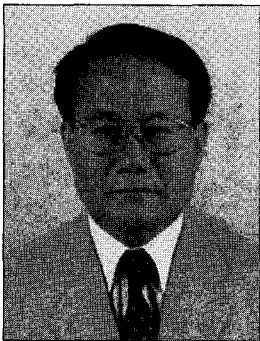


## 우수한 제품으로 승부

### 과감한 설비투자 및 내부 체계화



◀ 조기수  
(주)삼지에드텍

우리나라는 성장과 투자, 외형위주의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기업 또한 내부적 안정보다는 규모를 먼저 생각하고, 전문적이기보다는 아마추어적으로 외형 늘리기식을 통해 결국 IMF체제라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 기업이 있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치열한 국제경쟁에 선진화를 위한 차별화 된 경영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삼지에드텍을 찾았다.

모든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IMF시절, 구조조정과 급여 차감, 또는 많은 기업이 부도를 당해 많은 가장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했던 그 시절 삼지는 여느 기업과는 달리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반을 더욱더 든든히 했다.

지금의 본사 사옥 마련을 마련해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설비 증설을 통해 내부적인 안정을 꾀하였다.

삼지에드텍은 1976년 총 5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신성이라는 디자인 회사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수 패키지디자인만을 해 오다 1995년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자 제판 업무까지 담당하며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1998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 다이니폰 스크린사 출력기를 도입하고 자체 출력 업무를 개시했다. 이어 1999년에는 일본 VALCAS 전자 조각기 2대와 일본 SUN-PRITECS사 부메랑, 일본 SANKO 연마기, 일본 GROVO PROOF 교정기, 동경도기 및 심도 측정기를 도입했다.

“설립 당시 황무지와 같던 포장 디자인 분야에 뛰어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낌 없는 투자로 기업의 자생력을 길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조기수 사장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판업이라 하면 소자본으



▲ 남동공단 소재 본사 사옥

로도 쉽게 뛰어 들 수 있는 분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유지가 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판업계의 난립은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저가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제판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삼지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기수 사장은 이러한 주위 여건이나 환경에 맞춰 '대충 때우기식' 보다는 오로지 '정도'를 지키며 오직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한

다는 각오다.

때문에 삼지는 기존 설비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해외를 오가며 자료를 수집한 후 지난해 12월 최신식 이태리 레이저 연마기를 설치 완료했다.

조기수 사장은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멀리 보고 경영자의 과감한 결단과 함께 임직원들의 상호협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물안 식' 경영보다는 제품에 있어서 차별화를 위한 아낌없는 설비 투자는 물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자 연구개발을 꾀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포장 인쇄에 있어서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 특히 실린더(동판)의 들레, 표면상태,



◀ 초정밀 레이저 연마기(국내최초도입 - 이태리)

진원도를 좌우하는 연마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수 사장은 “기존 연마기의 경우 수작업과 병행하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규격이 달라집니다”라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개념의 초정밀 설비를 증설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삼지가 구입한 레이저 연마기(Gravure Polishing Machine)의 경우 20/100 이내까지 연삭 및 연마가 되는 초정밀 연마기이다. 뿐만 아니라 선반기능인 바이트(초정밀 다이아몬드헤드)가 연삭해 주므로 정확한 진원도를 유지하고 실린더 표면은 거울표면처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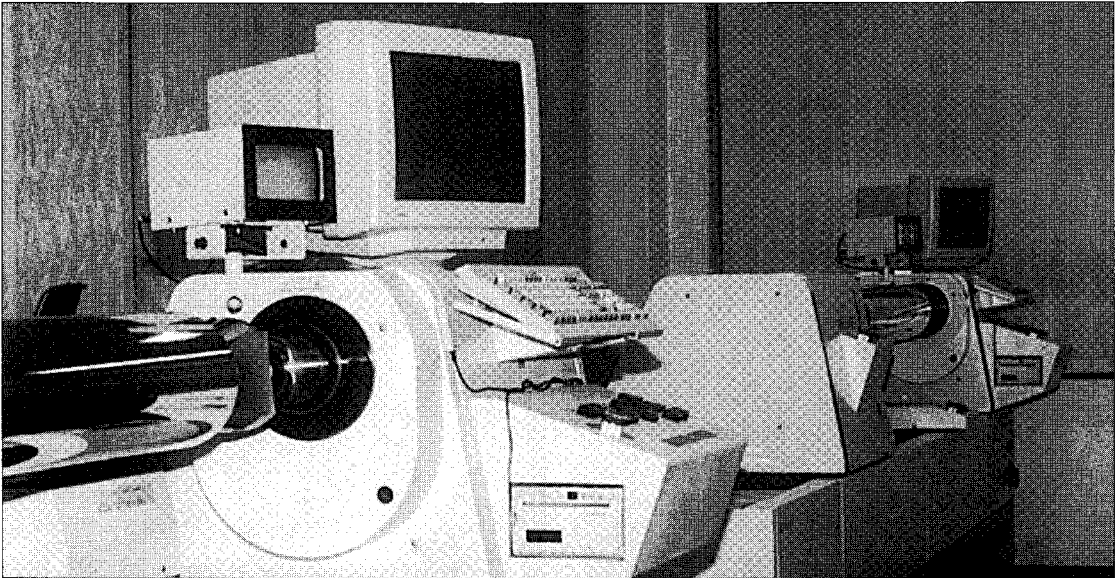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선보이다 하더라도 고객이 그 우수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직까지는 포장이라 하면 단지 제품의 보호성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뿐 아니라 마케팅을 고려해 포장의 순수 기능 못지 않게 포장 디자인과 인쇄 또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사용업체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라며 조 사장은 강조했다.

조 사장은 “남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자”라는 뚜렷한 경영 철학을 갖고 고객의 입장에서 저가에 고품질 제품을 제공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수 사장은 난립해 있는 시장 형태 뿐 외에 국내 연포장 분야의 열악한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연포장 분야는 외부 지원이 미미하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기존 기술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



▲ VALCUS 전자 조각기(제조국 - 일본 다이니폰社)

은데 이런 매일수룩 연포장 관련 업계간 상호 협력을 통한 독창적인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SP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의뢰해 진단을 해 보고 내부 체계화를 도모했다.

자가 진단을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여기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자료화, 정보화에 맞서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에 컴퓨터를 배치해 온라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사와 공장간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이를 활용해 전산을 전담할 부서를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삼지에드텍의 지점은 관리부, 디자인실, 출력실 이렇게 3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본사는 관리부 5명, 제판실 3명, 조각실 4명, 동도금·크롬도금실 5명, 연마실 6명, 영업부 3명, 품질관리부 2명, 환경 담당 1명 임직원을 다해 총 50여명이 삼지를 이끌고 있다.

항상 '지금' 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우수한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조 사장의 경영 방침을 통해 삼지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 삼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길 기대하고 오로지 '정도'를 지키겠다는 조 사장의 경영에도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